"월출산 천황봉~구정봉에 한 곳 있다는데…"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13〉

■ 천자지지 (天子之地)

누구나 한 번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수많은 욕망 가운데에서도 절대 권력에 대한 환상만큼 자기 위안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절대 권력으로 인간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보통사람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환상만으로도 자기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은 하늘을 대신하는 '천자(天子)'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천자는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인 하늘의 아들이며, 현인들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지배하고 만민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다.

그런데 천자는 어떻게 때어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땅이 잉태하여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은 마치 신앙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또 그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면서, 천자가 나올 수 있는 대 명당에 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어느 왕조이든 소위 '명당'에 의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행정관청을 만들어 수시로 삼엄하게 감시를 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하늘의 기운을 받은 곳"

정1품의 영사(領事)가 수장이 되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이를 관리하였는데 19세기에는 그 관원이 180여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하늘이 필요로 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천자지지'이다.

저 유명한 진시황제의 생부가 당대의 장사꾼인 여불위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씨춘추'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어느날 여불위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상복을 입은 서너 명의 젊은 사람들이 늙은 노인 한 사람을 백주 대낮에 두들겨 패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여불위가 젊은 사람들을 뜯어말린 뒤에 그 연유를 물었더니, 젊은 사람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 노인은 유명한 지사(地師)인데 천자지지가 있다고 하여 돈을 3천냥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으로 부모님 묘를 이장하려고 파묘까지 해서 왔는데 갑자기 혈처(穴處)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황당해 사기를 친 노인을 혼내주고 있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여불위가 그 노인의 관상을 살펴보니 보통 노인이 아니라, 도인의 기골이 엿보였다. 그는 즉석에서 3천냥을 갚아주고, 노인을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극진히 치료를 해 주었다. 이에 감격한 노인이 여불위의 손을 이끌고 천자지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안보이던 혈처가 거짓말처럼 훤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노인이 말하기를 "명당은 아무래도 주인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여불위의 아버지를 그곳으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처음으로 중국천하를 통일하고 '천자(天子)'가 된 진시황제이다. 그가 태어날 때 갑자기 온 방안에 붉은 서광이 비치면서, 기이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백가지의

"잘못 건드리면 재앙 불러"

아름다운 새들이 모여들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탄생을 축하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시황제와 같은 천자가 태어날 수 있는 대혈(大穴)이 있을까?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천자지지는 일반 제왕지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우선은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역량과 그 위용이 만산과 창해(滄海)를 제압할 수 있어야하고, 천자천품(天姿天稟)으로 만물을 생육하면서 식민(植民)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정의 덕기(德器)임을 개국의 형상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이런 천자가 태어날 수 있는 땅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천장지비(天藏地秘)의 혈이기 때문에 모든 천신과 지신들이 지키고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만약에 안다 할지라도 그 곳을 욕심내고 잘못 건드리면, 비명횡사와 함께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는 재앙이 따르는 것이니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여러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대통령'정도의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군신봉조(君臣奉朝)'형은 수 백 곳이고, 군왕지지(君王之地)나 제왕지지(帝王之地)도 수없이 많지만, 천자지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일이고결(一耳古訣)'에 "월출산 천황봉과 구정봉 사이에 필시 하늘에서 내린 천자가 14대(400여년)동안 이어지는 땅이 있다"라고 짤막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全部)일 뿐이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천자(天子)가 태어날 수 있는 땅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천장지비(天藏地秘)의 혈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진은 월출산 전경

■ 전라도 역사이야기 -왕건 '영산강 대전'

화공법으로 견훤軍 대파
'몽탄' '파군교'지명 유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는 서남해 지역을 선점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영산강유역세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산강 대전'의 승리와 이에 얽힌 설화를 통해서 살펴보자.

왕건이 서남해 지역을 둘러싸고 견훤과 최후 결전을 벌인 것은 912년이었다. 왕건이 서남해 공략에 나서자 견훤은 후백제의 해군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견훤의 군대는 전함을 총동원하여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영산강 하구를 가득 메웠다. 이는 왕건의 군대가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세력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이었다. 난관에 봉착한 왕건은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을 써서 견훤의 전함을 거의 전소시키고 후백제군 500여급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다.

'군대를 격파한 다리'라는 의미의 파군교.

이 전투는 제갈공명이 화공을 써서 대승을 거둔 저 유명한 적벽대전을 연상케 하는 인상 깊은 해전으로서 '영산강 대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실제 '고려사'에서는 이 해전의 의의에 대하여 "이로써 삼한 땅의 태반을 궁예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하여, 왕건이 보필하던 궁예가 대세를 장악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서남해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이런 '영산강 대전'의 역사 사실은 무안군 영산강변의 '몽탄'이라는 지명과 '파군교'라는 다리 이름과 얽혀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그 설화의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왕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산강변에 진을 쳤는데, 견훤군이 사방을 에워싸고 공격을 가해와 왕건군이 위기에 처했다. 마침 밤이 되어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왕건이 잠시 조는 사이에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 견훤이 지금 강물이 빠졌으니 이때 견훤을 치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잠에서 깬 왕건은 그 노인의 말대로 하여 과연 대승을 거두었다. '꿈의 여울'이란 의미의 몽탄(夢灘)이란 지명과 '군대를 격파한 다리'라는 의미의 파군교(破軍橋)의 이름은 이로부터 연원한다".

우리는 이 설화에서 한 때 왕건이 견훤군에 포위되어 몰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설화의 지은이는 아마도 서남해지역의 민중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왕건의 통일대업도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을 자부하는 한편, 왕건을 향해 그것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설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꿈속에 나타난 백발노인이란 그들의 염원을 담보하는 '서남해 그리고 영산강의 신령'으로 볼 수 있겠다.

/강봉룡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누가 들을까 무섭다'의 줄임형

(13) 누가 들을깜숩다야

'-갑다'/'-ㄴ가 보다' : "내일은 비가 올란갑다"라는 말에서 '-ㄴ갑다'는 표면상으로는 중앙어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ㄴ(는/은가) 보다'가 줄어진 형태로 보인다. 즉 "내일은 비가 오려는가 보다"와 뜻이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대비해 보면 추측의 뜻은 공유할지라도 방언에서의 실제 발화는 중앙어에 비하여 문법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예컨대 "포도시 살아 간갑드만. 밖에 누가 왔는갑네. 깜박 잊어부렀는갑소. 돈이 없는갑디야? 그 여자 참 이뿌게 생겼는갑서"처럼. 한편 '-갑다'에 계사 '이다'가 결합된 '-ㄴ갑이다/-ㄴ갭이다'형도 쓰인다. "오늘은 눈이 올란갑이요/갭이요. 그 사람과 정이 들었는갭이든디 어찌 혼자 살고 있는갭이데"

이와 비슷한 예로 '버리다, 무섭다/무숩다'도 있다. '버리다'도 보조용언으로 쓰이면서 전라도방언에서는 '부-/불-/뿌리-/뿔-/삐리-/삘-/번지-/뻔지-/뿐지-'등의 이형태가 다양하게 쓰인다. "아따. 땀이 파싹 나부네. 기양(그냥) 와불래? 어서 내뿌러라/내뿐져라" 등. 또 "누가 들을깜숩다야"와 같은 말도 실은 '-ㄹ까 무섭다'가 줄어진 형태다.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삼지닥나무

서향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햇볕이 잘 드는 언덕이나 비탈진 야산에서 자라며, 키는 2~3m 정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3~4월이다.

노란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주로 재배하고 껍질은 제지와 한지 원료로 쓰인다.

/라규채 생태사진가